

온난화의 저주인가

봄철 엘니뇨 이상저온 ... 여름엔 라니냐 폭염·호우

광주 올해 일조량 평년의 78% 불과

2010년 봄과 여름 날씨는 한마디로 '이상'했다. 이상저온과 일조량 부족으로 '서늘한 봄'이 계속되더니 여름에는 폭염과 집중호우가 이어진 것이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엘니뇨'와 '라니냐'가 봄과 여름의 기후 이변에 각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이상저온·일조량 부족 '서늘한 봄' = 12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광주의 올해 4월 평균기온이 11.2도로 평년(1971~2000년)의 평균)보다 1.7도 떨어졌고, 이는 지난 1997년 이후 가장 낮은 것이다. 기온이 떨어진 만큼 일조시간도 많이 부족했다. 올해 1~8월 광주 평균 일조시간이 1181시간으로 평년(1506.6시간)보다 325.6시간 적었다. 이는 평년의 78.4%에 해

달하는 수치다. 일조시간 부족 현상은 봄에 두드러졌다. 4월 광주 평균 일조 시간은 191.4시간으로 평년(217.1시간)보다 25.7시간 적었다.

▷폭염·집중호우 '무더운 여름' = 광주·전남의 올해 8월은 38년 만에 가장 더운 달이었다. 8월 광주의 열대야 일수는 21일로 평년보다 세배 가량 많았고, 최고기온이 30도를 넘는 폭염을 보인 날도 27일을 기록했다. 지난 8월 광주·전남의 평균기온은 27.3도로 평년(1973~2000년)보다 1.6도나 높았다. 1973년 이래 최고 평균기온으로 최근까지 가장 무더웠던 것으로 기록된 지난 1994년(27.2도)보다 높은 수치다.

또 지난 8월 광주·전남 평균 강

수량은 388.6mm로 평년(249.7mm)에 비해 138.9mm 많은 비가 내렸으며, 강수일 수는 16.3일로 평년(11.7일)보다 4.6일 많았다.

▷이상기후 원인 = 봄 기후가 서늘했던 이유는 온난화와 열대태평양의 수온이 높은 '엘니뇨'의 영향이 5월까지 이어졌기 때문. 온난화로 시베리아 얼음이 녹아내리면서 냉기가 한반도까지 내려와 불철 저운 현상이 지속됐다.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가 이어진 것에는 동태평양 해역의 수온이 예년보다 0.5도 이상 떨어지는 현상인 '라니냐'가 한몫했다. 이로 인해 여름 날씨에 영향을 주는 덥고 습한 북태평양고기압이 세력을 오랜 시간 강하게 유지하며 여름철 한반도에 폭염과 집중호우가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미소가 예쁜 그녀

광주여자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 '제4회 스마일 퀸 콘테스트'가 11일 광주여대 어둠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가운데 참가 학생들이 본선 심사에 앞서 거울을 보며 미소 짓는 연습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귀성 21일 오전·귀경 22일 오후 혼잡

서울~광주 6시간 30분

올해 추석 귀성길은 21일 오전, 귀경길은 추석 당일인 22일 오후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이동인구는 지난해 추석보다 2.9% 늘어나고, 귀성시 서울~광주는 6시간30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국도해양부는 한국교통연구원에 의해 지난달 19일~24일, 30~31일 두 차례에 걸쳐 전국 6800가구를 대상으로 추석 연휴 교통수요를 조사한 결과,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전국 예상 이동인구는 4949만명, 1일 평균

550만명이다.

이는 지난해 추석 대비 2.9%, 평상시보다는 70.5% 증가한 수치다. 일별 교통량 분포는 예년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승용차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서울~광주 6시간30분 ▲서서울~목포 6시간30분 ▲광주~서울 6시간 ▲목포~서서울 6시간30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추석 연휴기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철도와 버스는 평상시보다 8% 이상, 항공기와 연안여객선의 수송능력을 각각 5%와 22% 늘리기로 했다.

/이종행기자 galee@

주말 광주·전남 강풍·폭우 피해

농성동 지하차도 침수 ... 호남고속도 차량 사고

지난 주말 광주와 전남 일부 지역에 강풍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 침수 피해와 교통사고가 잇따랐다. 특히 광주지역은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가 넘는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하남로와 서구 농성동 지하차도가 침수돼 교통 혼잡이 빚어졌고, 서구 마곡동 화훼단지 일부가 침수됐다가 1시간여 만에 물이 빠졌다.

빗길 교통사고도 잇따라 11일 오전 10시10분께 담양군 고서면 호남고속도로에서 승합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차에 타고 있던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또 오전 10시 20분께는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순천지점 62km 지점에서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옆 차선을 달리던 트레일러와 부딪히는 바람에 트레일러가 넘어져 2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와함께 12일 새벽 4시50분께 목포시 평화광장 앞 해상에서 최모(44)씨 등 18명이 탄 낚시배 3척이 강풍에 떠밀려 영산강 하구둑 저지대에 고립됐다가 긴급출동한 해경에 의해 구조됐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위안부 진화순 할머니 별세

젊은 나이에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모진 고초를 겪은 진화순 할머니가 11일 별세했다. 향년 80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따르면, 지난해 말 병원에 입원해 수개월간 투병해 온 위안부 피해자 진 할머니는 이날 오후 5시40분께 광주첨단병원에서 눈을 감았다.

1930년 장성에서 태어난 진 할머니는 15세 되던 해 광주에 있는 제사공장에서 일하던 중 서울로시에 취직시켜준다는 소문을 받고 만주로 연행돼 일본군의 위안부로 인권을 유린당하며 모진 고통을 겪었다.

/연합뉴스

추석연휴 일제검문 중단

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를 명분으로 한 경찰의 일제 검문검색이 올 추석 연휴부터 중단된다고 경찰청이 11일 밝혔다.

경찰청이 매년 추석이나 설을 앞두고 전국 관서에 지침을 내려 동시 검문검색을 한 탓에 상당수 행인은 범

죄자로 의심받아 검문검색을 당하는 불편을 겪었다.

경찰은 9일부터 23일까지 보름간 추석 특별방범 활동을 벌인다. 15일까지 전국 금융기관과 다액 현금 취급업소 등에서 일제 방범진단을 발이고 경찰서별로 금융기관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며, 현금흐름 경비업체와 취약 금융점포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특별점검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13분 / 해질 18시 43분 / 달돋이 11시 36분 / 달질 21시 39분

파란 가을 하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겠다.

광주	구름조금	21/28°C
목포	구름조금	21/27°C
여수	구름조금	21/27°C
완도	구름조금	20/28°C
구례	구름조금	18/29°C
애남	구름조금	20/28°C
장흥	구름조금	20/28°C
고흥	구름조금	19/29°C
순천	구름조금	19/29°C
영광	구름조금	20/27°C
진도	구름조금	20/28°C
전주	구름조금	20/28°C
남원	구름조금	17/28°C
목포	구름조금	20/26°C

지역	종형	파고	지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블랙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1.0m	☀	☹	☹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5m	☀	☹	☹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0~2.0m	☀	☹	☹

▷주간날씨
14(화) 15(수) 16(목) 17(금) 18(토) 19(일)

최저/최고: 19/29, 19/28, 19/29, 20/29, 21/29, 21/28

하나SK카드

2500만 고객을 위한 블록버스터 카드
Touch 1 카드 출시!

나라의 반을 움직일 카드, 고객이라면 이제 지갑 속에 하나SK카드 하나만

카드 혜택: 50%할인 / 영화 전액 연회료 / 주유, 마트, 호텔 20% 할인 / 학원 배움 카드

고속버스는 매일 오전 9시50분과 오후 3시50분에 능주에서 각각 출발하며, 화순에서도 탑승할 수 있다. 또 서울에서는 매일 오전 9시30분과 오후 3시40분에 각각 화순(능주)행 버스가 운행된다. 요금은 능주~서울 구간 2만1000원, 화순~서울 구간 2만100원이다.

화순~서울 고속버스 17일 개통

화순~서울 간 고속버스 노선이 오는 17일부터 개통된다.

12일 화순군과 (주)금호고속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하루에 2차례씩 화순(능주)~서울 간 우등고속버스가 운행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매우 잘 들립니다. 안보입니다. 가격이 맘에 듭니다.

국제보청기

www.kjhr.com

본점 (062)227-9940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81-1 / 총장점 (062)227-9970

순천점 (061)752-9940 / 목포점 (061)262-9200 / 익산점 (063)851-2422

광주MBC 문화탐방

영양보충보림 가입업체, 기획여행 신고업체

삼국지 중원의 땅 중국의 古都 하남성으로... 세계 유네스코가 지정한 찬란한 문화유산의 총 집합체

10월16일~11월1 일(매주 수, 토) 단,9회 한정

무안 소림사 직행 전세기

소림사(정주) 관광 / 트래킹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 소림사 문화탐방에 참여하고자 하는 여정의 자세한 일정은 문의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상품명	요일	출발일	상품가	구분	상품명	요일	출발일	상품가
관	소림사/운대산(혼용석굴) 4일	수	10/20,27	₩699,000	트래킹	순산(송림사)·운대산(혼용석굴) 트래킹 4일	수	10/20,27	₩799,000
	소림사/태항산(혼용석굴) 4일		11/03, 10일	₩799,000		그랜드캐년 태항산 대협곡 트래킹 4일		11/03, 10일	₩799,000
	소림사/서안진시황빙마용(혼용석굴) 4일			₩859,000		화산·순산·운대산 중추 트래킹 5일		토	10/16,23, 30,11/06,13
광	소림사/운대산/개봉포청천(혼용석굴) 5일	토	10/16, 23,30	₩749,000	포함사항	포함사항	국제선왕릉공원, 무안출렁다리, 전쟁박물관, 중국현지 공연, 일정에 따른 현지 특급 or 일급호텔(2인실), 식사비, 관광차임, 1억원 여행자 보험, 순산케이불가 왕복(\$30)포함, 사르사르 1회, 삼겹살1회, 발매키1회(입55원도), 서안산용원복합급탕비		
	소림사/서안진시황빙마용		11/06, 13일	₩899,000		불포함사항	중국단체비자비용 - 1인당 18,000원(관광여권, 외국인여권, 개인비자비용) 한여정가이드 및 카사팀 - 4인 30,000원(1인당) 5인 40,000원(1인당), 유류할증료 - 54,000원(1인당), 개인경비 및 현지에서 진행되는 선택관광비용		

※ 어린이는 성인요금과 동일합니다.

광주MBC 문화탐방 전세기 사무실 [문의전화] 062)226-6070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양국정부인가조건)

◎랜드뱅크여행사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42-10